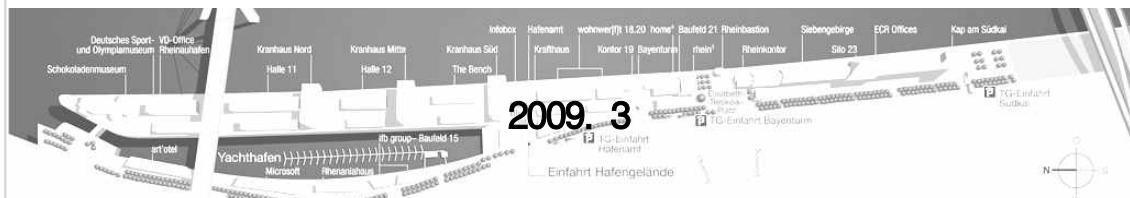


해외 주요국가의 수변공간 정비사례



국토연구원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수변공간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정비사업 조사
-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조사

☐ 조사대상지

- 프랑스 리옹
 - Berges du Rhone (리옹 도심 론강 친수공간)
 - Grand Parc (론강 블루링 프로젝트 수변공원)
 - Lyon Confluence (리옹 도시재생 프로젝트)
 - Parc de Gerland (론강 수변공원)
 - Port Herriot (론강 산업항구)
- 독일
 - 뒤셀도르프
 - MedienHafen (라인강 주변 도시재생 사업), Rheinuferpromenade (라인강 주변 친수연결체계 조성)
 - 쾰른
 - Rheinauhafen (라인강 주변 도시재생 사업)
 - 프랑크푸르트
 - Main Embankment at Hochst (마인강 주변 수변공간 정비)
 - Westhafen (마인강 주변 도시재생 사업)
 - MainuferPark(마인강 주변 수변공간 정비)

☐ 조사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최두남 위원, 청와대 정옥주 행정관,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박승기 과장,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 해안건축 김대성 본부장 등 총 5인

□ 주요일정

○ 2. 25 (수) : 그랜드 리옹 업무회의

- 11:00 ~ 14:30 : 그랜드 리옹 관계자 브리핑

- 15:00 ~ 17:00 : 현장시찰

· Berges du Rhone (론강 수변정비 사업)

※ 그랜드 리옹 부시장 면담 (M. Roland Bernard), 수변공간 전문가 프리핑 (M. Jean-Louis Azema 도시계획총국 수석엔지니어), 수변공간 현장답사 (M. Jean-Louis Azema 도시계획총국 수석엔지니어, Mme. Annie Tarvion 조경전문가)

○ 2. 26 (목) : 현장답사

- 10:00 ~ 18:00 : 그랜드 리옹 수변공간 정비사례 현장답사

· L'anneau bleu, Lyon Confluence, Parc de Gerland, Port Herriot

○ 2.27 (금) : 뒤셀도르프 시청 업무회의

- 10:00 ~ 16:30 : 뒤셀도르프 시청 관계자 브리핑 및 현장시찰

· MedienHafen (라인강 주변 도시재생 사업), Rheinuferpromenade (라인강 주변 친수연결체계 조성)

※ 브리핑 (Dr. Gregor Bonin 집정관, Hans-Dieter Jansen 도시계획국 미디어하펜 담당관, Andreas Schmitz 도시계획국 담당자), 수변공간 현장답사 (Hans-Dieter Jansen 도시계획국 미디어하펜 담당관, Andreas Schmitz 도시계획국 담당자)

- 18:00 ~ 21:00 : 쾰른 수변공간 현장답사

· Rheinauhafen (라인강 주변 도시재생 사업)

○ 2.28 (토) : 현장답사

- 10:00 ~ 11:00 : 뒤셀도르프 수변 도심공간 현장답사

- 13:00 ~ 16:30 : 푸랑크푸르트 수변공간 현장답사

· Main Embankment at Hochst, Westhafen, MainuferPark

< 수변공간 정비사례 해외조사 세부일정 >

구 분	수행 사항	비 고
2. 24(화)	● 인천 → 프랑스(파리) → 프랑스(리옹)	출발(10:05) → 도착(17:25)
2. 25(수)	● 프랑스 그랜드 리옹 브리핑 및 현장답사 - Bergers de Rhone(수변 연계체계)	그랜드 리옹 부시장 면담 (M. Roland Bernard) 전문가 프리핑(현장답사) (M. Jean-Louis Azema, Mme. Annie Tarvion)
2. 26(목)	● 프랑스 현장답사 (Rhône강 및 Saone강) - Grand Parc (블루링 프로젝트 관련) - La Confluence (수변중심 도시재생프로젝트) - Parc de Gerland (수변 수변공원) - Port Herriot (항구) ● 프랑스(리옹) → 독일(뒤셀도르프)	
2. 27(금)	● 독일 뒤셀도르프시청 브리핑 및 현장답사 - MedienHafen (수변중심 도시재생프로젝트) - Rheinuferpromenade (수변 연계체계) ● 독일(Rhine강) 쾰른 현장답사 - Rheinauhafen (수변중심 도시재생프로젝트)	뒤셀도르프 행정부시장 브리핑 (Dr. Gregor Bonnin) 전문가 브리핑(현장답사) (Hans-Dieter Jansen, Andreas Schmitz)
2. 28(토)	● 독일 뒤셀도르프 현장답사(Rhine강) - 수변공간과 인접한 도심지역 ● 뒤셀도르프 → 프랑크푸르트 ●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답사(Main강) - Main Embankment at Hochst (수변중심 역사문화자원 활용) - Westhafen (수변중심 도시재생프로젝트) - MainuferPark (수변중심 연계체계)	
3. 1(일)	● 독일(프랑크푸르트) → 인천	출발(28일 19:05) → 도착(13:25)

2. 조사내용

1) 프랑스

① Berges de Rhone

◦ 사업개요

- 면적 : 10ha
- 사업비 : 4400만 유로 (약 880억원)
 - 그랜드 리옹(광역지자체)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
- 사업기간 : 총 5년 (2005년부터 2009년 10월), 2년의 공사기간
- 사업과정 : 그랜드 리옹의 주관하에 건축공모와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계획 수립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의 배경 : 수변의 중요성을 과거부터 느꼈지만, 정치적인 용기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게 됨
- 기존 현황 : 대규모 주차장(1600대 정도)
- 계획 현황 :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수공간을 조성, 1000대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지하화

◦ 파급효과

- 강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수변 경제 활성화에 기여 (연간 약 7만 명의 관광객이 Berges de Rhone에 Universite 지역의 크루즈를 이용)
-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며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계획적인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조



② Grand Parc (블루링 프로젝트: L'anneau Blue)

◦ 사업개요

- 면 적 : 론강 상류 3000ha
- 위 치 : Miribel 과 Jonage 운하로 둘러싸인 지역
- 기 능 : “지속가능한 대도시”(metropole durable)라는 관점에서 도시, 도시발전, 레저기능 설정을 통해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사업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원칙 : 푸른 링을 soft 교통망에 포함, 푸른 링과 주변 동네들을 연계, 론강 자연 및 산업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 계획 내용 : 40km에 이르는 운하와 인근 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과 강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도록 설정
- 주요 사업 : la Feyssine 자연공원 조성, la réserve naturelle de Crépieux Charmy 활용(리옹지역 첫 번째 상수원(샘물)), Parc nature de Miribel Jonage 재정비, la Rize 정비, désenvasement du Grand Large 준설, Carré de Soie 정비, 지하철 A선 연장 등 대중교통 정비

◦ 파급효과

- 수변의 친환경적인 보전으로 리옹 주민의 레저와 문화의 쉼터 역할



③ Lyon Confluence

◦ 사업개요

- 면 적 : 150ha
 - 1단계(41ha), 2단계(24ha), 3단계(5ha)
- 위 치 : 론강과 손강이 합류하는 지역
- 총 사업비 : 11억 4500만 유로 (약 3조 1000억원)
 - 민간 : 6억 8000만 유로, 공공 : 4억 6500만 유로
- 사업기간 : 1995 ~ 현재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배경 : 리옹의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공간이었으며, 산업공간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20세기 말부터 쇠퇴하고 활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도심(Downtown)공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랜드리옹은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함
- 계획현황 : 설탕공장으로 활용되던 역사적인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여 갤러리로 활용하고, 남측지역에 문화공간인 박물관을 건설, 미디어와 통신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도심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

◦ 파급효과

- 2만 명의 거주인구와 2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④ Parc de Gerland

◦ 사업개요

- 면 적 : 18ha
- 위 치 : Berges de Rhone 남측지역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 인접)
- 사업비 : 4200만 유로 (약 840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주변지역에 산업적인 토지이용으로 활용되던 공간을 레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
- 계획 내용 : 40km에 이르는 운하와 인근 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과 강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도록 설정
- 중요 사업 : la Feyssine 자연공원 조성, la réserve naturelle de Crépieux Charmy 활용(리용지역 첫 번째 상수원(샘물)), Parc nature de Miribel Jonage 재정비, la Rize 정비, désenvasement du Grand Large 준설, Carré de Soie 정비, 지하철 A선 연장 등 대중교통 정비

◦ 파급효과

- 수변의 친환경적인 보전으로 리옹 주민의 레저와 문화의 쉼터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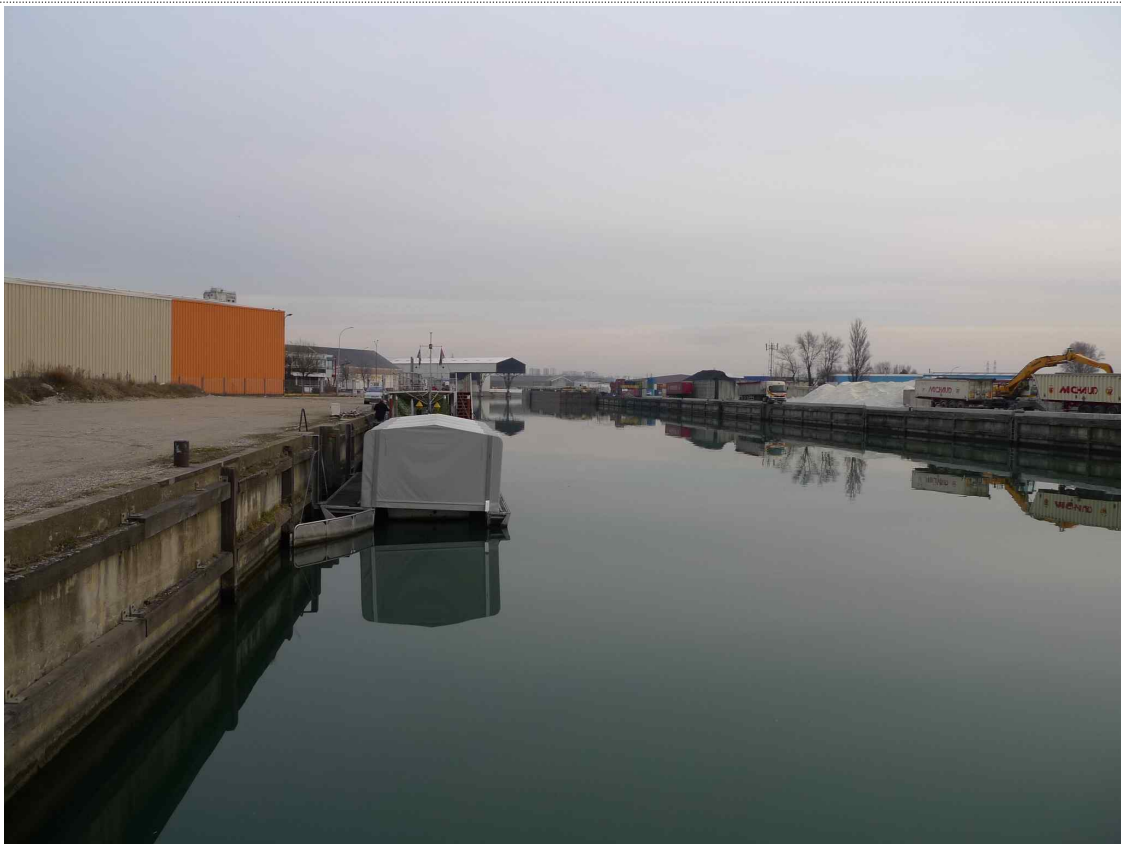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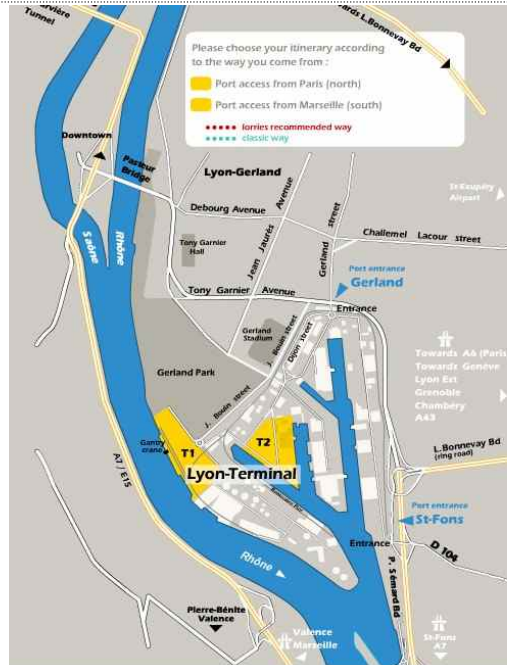
⑤ Port Herriot

◦ 개요

- 면 적 : 20ha
- 2007년 4월 현재 2터미널을 개장하여 현재의 면적을 확보하였음
- 위 치 : Gerland Parc인접 남측지역, 리옹 터미널(Lyon Edouard Herriot)
- 하역능력 : 2008년 현재 13만 7000TEU의 하역능력을 보유함

◦ 기타

- 철도와 리버부틀(소형 컨테이너 수송배)를 이용해 단거리 수요의 물량을 수송하고 있음
- 리옹지역 물동량의 약 10%를 운송하며, 환경오염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⑥ 그랜드 리옹 업무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09. 2. 25(수) 11:00~17:00
- 장소 : Communaute de Lyon (20 Rue du Lac-BP 3103, 69399 Lyon Cedex 03)
- 프로그램
 - 리옹 부시장 면담(M. Roland Bernard, 그랜드리옹 부시장, 수변공간 및 지역개발담당관)
 - 수변공간 전문가 프리핑 (M. Jean-Louis Azema 도시계획총국 수석엔지니어)
 - 수변공간 현장답사 (M. Jean-Louis Azema 도시계획총국 수석엔지니어, Mme. Annie Tarvion 조경전문가)

□ 회의 주요내용

- Berges du Rhone의 계획과정
 - 초기단계는 그랜드 리옹의 주관 하에 건축공모를 통해 다수팀을 선정하였으며 5개팀의 제안을 받음
 - 계획초기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Berges du Rhone의 사업개요
 - 사업비 : 4400만 유로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됨
- 과거의 토지이용은 1600대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이었으며,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 1000대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지하화 하였음
- 수변정비는 블루플랜을 참고로한 계획이며, 법적으로 수립된 도시 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계획을 참고하였음
- 프랑스에서 수변공간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혼 강 프로젝트가 유일함
- 이러한 대규모의 공사는 프랑스에서도 아주 희소성이 있는 사례임
- 지방정부나 조경사무소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특별한 작업이 었음
- 푸른링이라는 40km 정도의 수변공간계획이 있는데 최소한의 계획 으로 자연적인 성격의 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0년에 시작하여 1년 반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며 공사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 현재 손강 수변공간에 대한 50km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현재 손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계획에 따라 손강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선정된 올드 리옹에 입지하고 있는 두 개의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능을 없애고 지 하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보행 또는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조성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도시권역 전체, 주변에 사는 커뮤니티 차원 동네 및 공간 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Communaute de Lyon 브리핑 >



< Berges du Rhone 현장답사 >

2) 독일

① 뒤셀도르프 (MedienHafen)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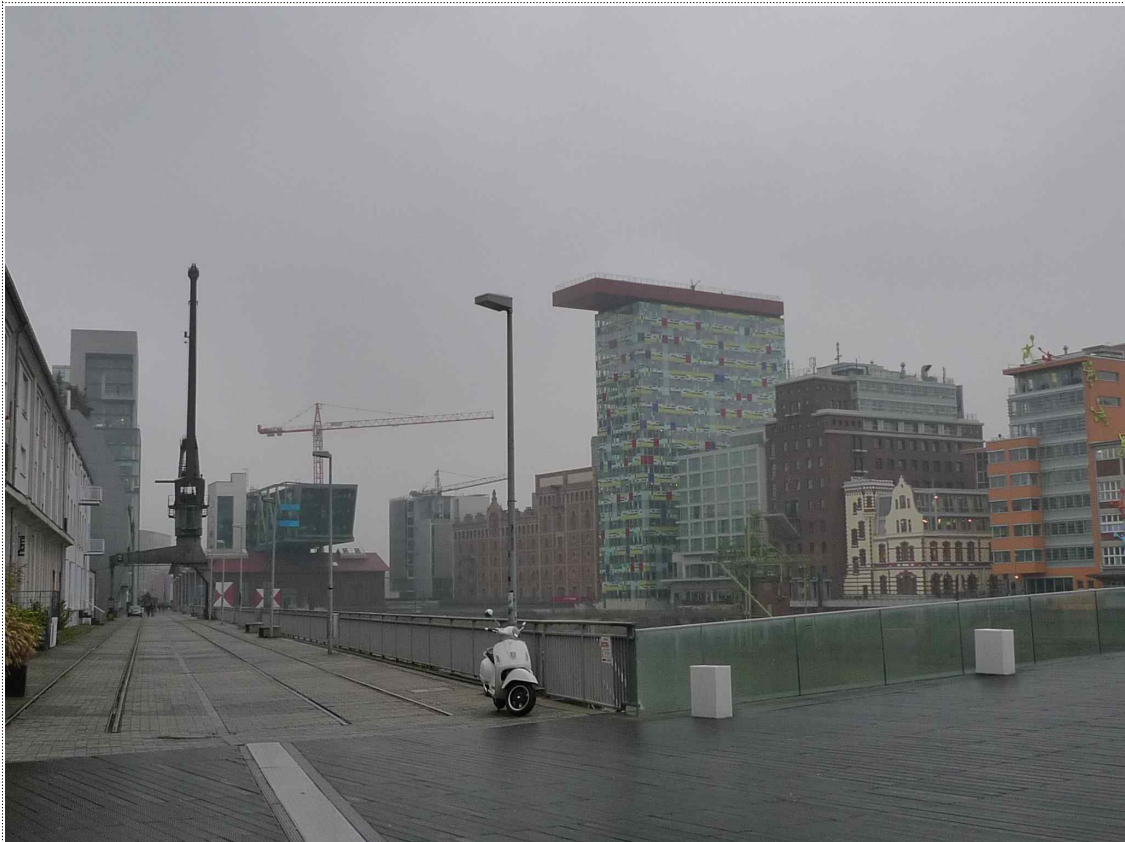
- 면적 : 30ha
- 사업기간 : 2단계 계획기간은 10년(1989~1999)으로 현재도 사업을 추진중임
 - 1970년대 말 1단계로 라인탑(: Rheinturm, 234m), 1980년대의 2단계에서는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특히 창조적 직업), 문화시설, 화실, 수공예 작업실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개별 건물들이 들어섬
 - 3단계 및 4단계는 1990년대 초에 계획되어 추진
- 사업과정 : 뒤셀도르프 시청의 주관 하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함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쇠퇴한 라인강의 항구를 재생하여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업무문화공간으로 재생
- 계획 현황 :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로 뒤셀도르프의 명소로 부각됨

◦ 파급효과

- 709개의 기업과 8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함
- 1단계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와 향후 총 16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예상됨



② 뢰셀도르프 (Rheinuferpromenade)

◦ 사업개요

- 면적 : 28ha (약 2km)
- 사업기간 : 계획기간 5년(1998년 ~ 1993), 공사기간 3년 (1990 3월 ~ 1993년 11월)
- 인접한 지역에 1979년 주 의회 건설로 인해 라인강과의 단절요소로 인식되었던 도로의 지하화에 대한 탄력을 받게 됨
- 사업비 : 3억 유로(약 6000억원)
- 사업과정 : 뢰셀도르프 시청의 주관하에 과거에 사용하였던 도로를 지하화하여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제공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도로로 인한 단절된 수변공간 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 계획 현황 : 인접한 남측 Medienhafen지역의 항구기능의 이전으로 인한 수변공간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도시이미지의 변혁에 기여함

◦ 파급효과

- 뢰셀도르프 시민의 수변공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인접한 도심부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함
-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5만 5000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여 도시수변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



③ 쾰른 (Rheinauhafen)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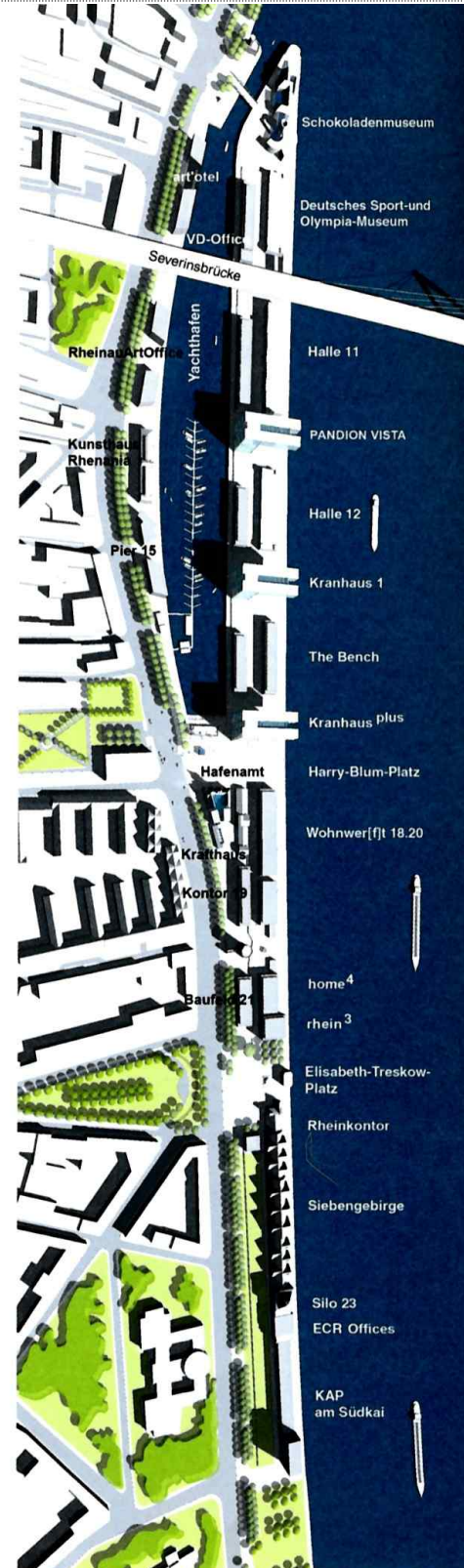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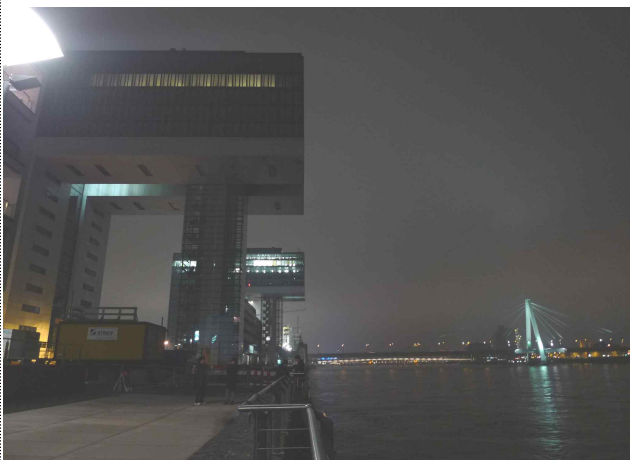
- 면적 : 23ha
- 사업기간 : 2010년 완공
- 사업비 : 6억 5000만 유로(약 1조 3000억원)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도심지역과 연계된 버려진 항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시행함
- 쾰른지역의 역사성을 확보하는데 계획의 주안점을 두고 시행함
- 계획 현황 : 성공적인 요소는 도시계획과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쾰른과 본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수변공간 재생프로젝트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기타 사항 : 제방을 새로운 도시민의 오픈스페이스로 제공하고 역사적인 쾰른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계획

◦ 파급효과

- 700세대의 주거(약 6만 3000m²의 연면적)와 약 연면적 14만 6000m²의 오피스가 입지하고 있음
- 약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④ 프랑크푸르트 (Main Embankment at Hochst)

◦ 사업개요

- 면적 : 2.6ha (650m)
- 위치 : 프랑크푸르트 마인(Main)강
- 사업비 : 175만 유로
- 사업기간 : 2006년 완료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소규모의 역사적인 도시공간인 Hochst지역에 새로운 수변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도시재생의 요소로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 계획 현황 : 과거에 이용되었던 역사성이 있는 부둣가를 주민이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하여 새로운 어메니티를 창조함
- 기타 사항 : Hochst의 강 건너편인 Schwanheim 두 지역을 왕복하는 페리가 운항하여 새로운 보행교 건설보다는 배의 운항으로 두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 파급효과

- 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소도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의 투자로 지역 주민의 수변공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 인접한 역사문화공간의 연계로 인해 수변공간의 가치창조가 가능함



⑤ 프랑크푸르트 (Westhafen, MainuferPark)

◦ 사업개요

- 면적 : 17ha
- 사업기간 : 1999년 ~ 2015년
- 사업주체 : 프랑크푸르트시청과 민간의 공동 파트너십에 의한 공사에 의한 개발

◦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계획 배경 :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쇠퇴한 항구의 도시재생을 도모함
- 계획 현황 : 약 109m의 westhafen타워와 Mainuferpak와 연계된 보행도로의 건설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도입 기능 : 은행 등 업무기능의 유치로 새로운 도심기능의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도입기능의 투자유치로 인한 개발이익은 프랑크푸르트시와 민간개발자가 동 일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함

◦ 파급효과

- 수준높은 주거환경과 업무환경의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에 기여함
- 2000세대의 주거와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⑥ 뒤셀도르프 시청 업무협의

□ 회의개요

- 일시 : 2009. 2. 27(금) 10:00~16:00
- 장소 : Landeshauptstadt Dusseldorf (Kaistrabe 11, 40221 Dusseldorf)
- 프로그램
 - 브리핑 (Dr. Gregor Bonin 집정관, Hans-Dieter Jansen 도시계획국 미디어하펜 담당관, Andreas Schmitz 도시계획국 담당자)
 - 수변공간 현장답사 (Hans-Dieter Jansen 도시계획국 미디어하펜 담당관, Andreas Schmitz 도시계획국 담당자)

□ 회의 주요내용

- MedienHafen 사업개요
 - 계획기간 : 10년 (1989~1999)
 - 1970년대 말 1단계로 라인탑(: Rheinturm, 234m), 주의회 의사당, 서부독일방송(WDR) 스튜디오가 건설됨
 - 라인탑은 1982년에, 주의회 의사당은 1988년에, WDR 스튜디오는 1991년에 각각 완공됨
 - 1980년대의 2단계에서는 방송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특히 창조적 직업), 문화시설, 화실, 수공예 작업실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개별 건물들이 들어섬
 - 3단계 및 4단계는 1990년대 초에 계획되어 추진
 - 면적 : 30ha
 - 항구기능의 상실으로 인한 버려진 공간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함
- 수변공간의 연계성확보와 공공과 민간의 역할

- 수변과 연계된 공공공간에 대해 시는 일부 투자하고 민간이 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통해 개발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며, 공공공간은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함
- 뒤셀도르프는 과거부터 수변중심으로 도심부가 발달되어 있어 어 친수공간에 대한 지역적인 고유성을 갖고 있음
- 앞으로도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공간과 수변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임
- 침수범람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MedienHafen 서쪽지역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환경친화적 컨셉을 유지함
- 수변지역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함
- 농촌이나 생태적인 지역에 대한 수변공간을 존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쉽게 접근가능한 도심지역의 수변공간의 특성 등 다양성을 고려한 수변공간을 정비
- 뒤셀도르프시의 발전방향
- 요즘 많은 도시가 인구가 줄어들이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06년 말 58만이며 추정하기로는 60만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위해서 일자리창출과 거주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발전계획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음
- 뒤셀도르프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 거주와 삶의 질 향상(공공공간의 질을 높임)
- 경제성 있는 도시를 지향(국제적인 도시로 도약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
- 문화와 교육, 스포츠육성 (아이들 교육과 문화시설, 교육분야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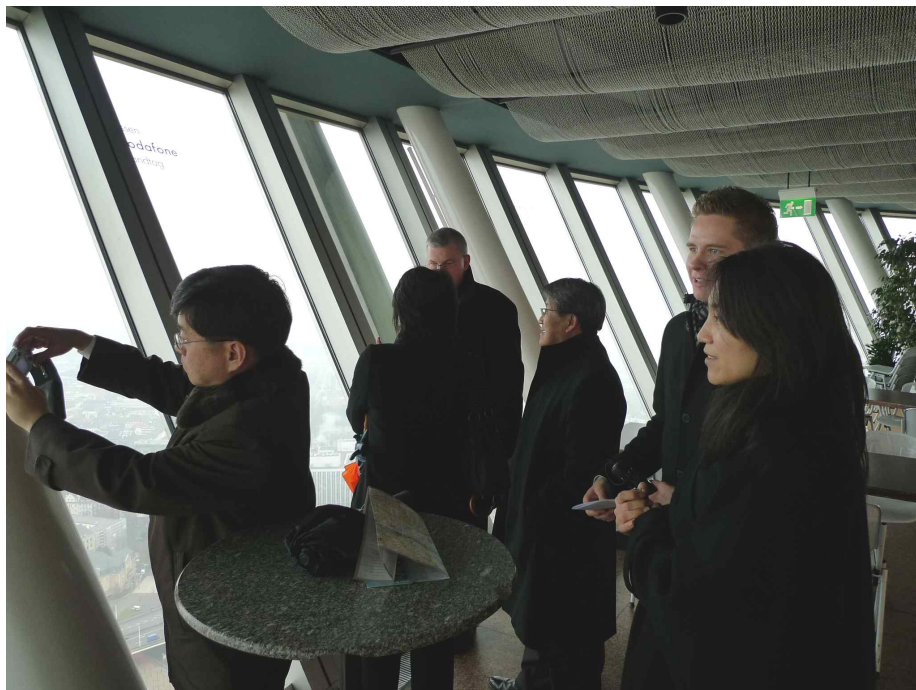
-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버려진 산업공간에 건축가가 참여하여 공동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 공간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주하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질 향상에 프로그램을 만들
-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점육성지역을 선정함
 - 메세 등이 입지하고 있는 공항지역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메디언하펜(MedienHafen) 지역을 선정함



< 뒤셀도르프 시청 브리핑 >



< 뒤셀도르프 시청 브리핑 >



< 뒤셀도르프 MedienHafen 현장답사 >

3. 시사점 및 결론

1) 주요사례 시사점

① 수변정비가 도시를 변화시킨 리옹

□ 도시와 강의 관계회복과 끝없는 강에 대한 관심

- 프랑스의 리옹은 론(Rhone)강과 손(Saone)강에 의해 도시조직(Urban Fabric)이 결정되었음 (인구: 46만 5000인, 면적 : 48km²)
 - 리옹은 론주(Rhone-Alpes)의 경제적 · 문화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심도시는 46만 500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심도시이외의 광역권(The Greater Lyon)을 포함할 경우 130만인의 거대도시를 이룸
- 도시와 강의 관계(The City and its River)를 재정립
 - 리옹의 도시지역과 조직(Fabric)은 론과 손강에 의해 도시형태가 결정되어짐
 - 론과 손강은 구도심(Historical Urban Center) 남측지역에서 합수(合水)되어짐
 - 밀집되어진 구도심지역은 도시내부의 수변제방(Embankment) 도로에 의해 경계가 이루어짐
 - 또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있는 강둑은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손강을 따라서는 주거지역이 입지하지 않고 가파르고 좁은 도로가 이어지고 있음
 - 론강을 따라서는 손강의 폭보다 넓은 약 200m 넓이의 제방이 평면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수변은 역사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왔음

□ 그랜드 리옹과 블루플랜(Grand Lyon and 『Plan Blue』)

- 수변에 관심과 리옹 연합체(alliance)
 - 리옹은 그랜드 리옹지역 57개 코뮌 연합체(Urban Community)로 구성된 지역임
 - 그랜드 리옹 연합체(alliance)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수준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
 - 주민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주요한 과제중에 하나임
 -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은 도시수변공간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임
- 수변에 대한 관심은 “블루플랜(Blue Plan)”으로 이어짐
 - 1991년 그랜드 리옹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의 일환으로 “블루플랜(Blue Plan)”을 채택하였고, 론과 손강의 주변지역에 대한 “블루 인프라스트럭처(Blue Infrastructure)”의 개발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음
 - 연합체는 환경보전과 수문공학, 레저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음
- “블루플랜(Blue Plan)”은 수변의 변화와 도시의 재활성화에 기여
 - 1998년 블루플랜(Blue Plan)은 리옹주민에게 주차장 등 버려진 공간으로 활용되어진 리옹 남측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게 됨
 - 남측 수변공간은 론강의 주요한 관광자원인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진입부분에 버려진 공간으로 입지하고 있어 재생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온 지역임

- 남측수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전략은 기존도시와 수변공간을 연계하고 수준높은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임
- 이러한 개선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론강 수변프로미나이드(Berges du Rhone)이며, 도시와 수변사이의 매력적인 절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블루플랜(Blue Plan)은 론강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수변이용 저해요소에 대한 개선과 젤랜드공원(Parc de Gerland)과 같은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론강 전경 >

- 수변중심의 제방의 정비(Berges du Rhone)와 도시재생(리옹 confluence)
 - 블루플랜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미나이드(Berges du Rhone)는 도시민에게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

- 수변공간의 재생은 인접한 도심지역의 상권활성화 등 도시재생으로 이어져 리옹시가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 또한, 둔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변을 이용하는 수요자중심의 디자인을 실현함
- 어린이·청년층·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음



<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수변공간_론강(Berges du Rhone)>

- 디자인 개선을 통해 변화된 수변공간의 활력은 연간 약 7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건설로 인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됨
- 수변공간을 도시재생의 기회로 살린 리옹 콩플뤼앙스(confluence)
 - 수변공간에 박물관, 미술관, 주거기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변공간 디자인을 강조함
 - 다양한 수변공간의 활동프로그램을 도입하여ダイナミック한 도시공간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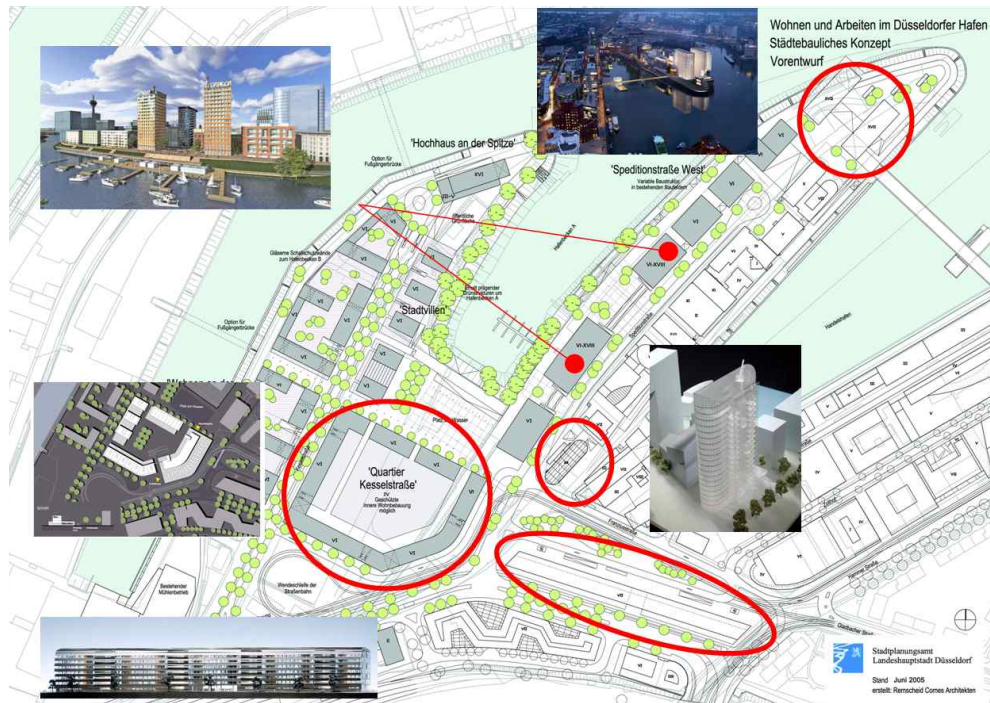


< 리웅 수변공간 재생 마스터플랜 및 미래모습_론강(confluence)>

② 수변공간 정비가 도시재생으로 이어진 뒤셀도르프

□ 수변공간 재생으로 도시를 재창조

- 뒤셀도르프는 방송, 통신, 유행의 창조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방송·정보·통신 관련부문에 4만 개 일자리가 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함
-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의 수변공간인 메디언하펜(Medien Hafen)을 재생한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와 뒤셀도르프와 루르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 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함
 - 이에 따라 시는 1974년 항구를 일부 축소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디어하펜(Media Hafen) 개발구상도 >

- 먼저 1970년대 말 1단계로 라인탑(: Rheinturm, 234m), 주의회 의사당, 서부독일방송(WDR) 스튜디오가 건설됨
 - 라인탑은 1982년에, 주의회 의사당은 1988년에, WDR 스튜디오는 1991년에 각각 완공됨
 - 1980년대의 2단계에서는 방송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특히 창조적 직업), 문화시설, 화실, 수공예 작업실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개별 건물들이 들어섬
 - 3단계 및 4단계는 1990년대 초에 계획되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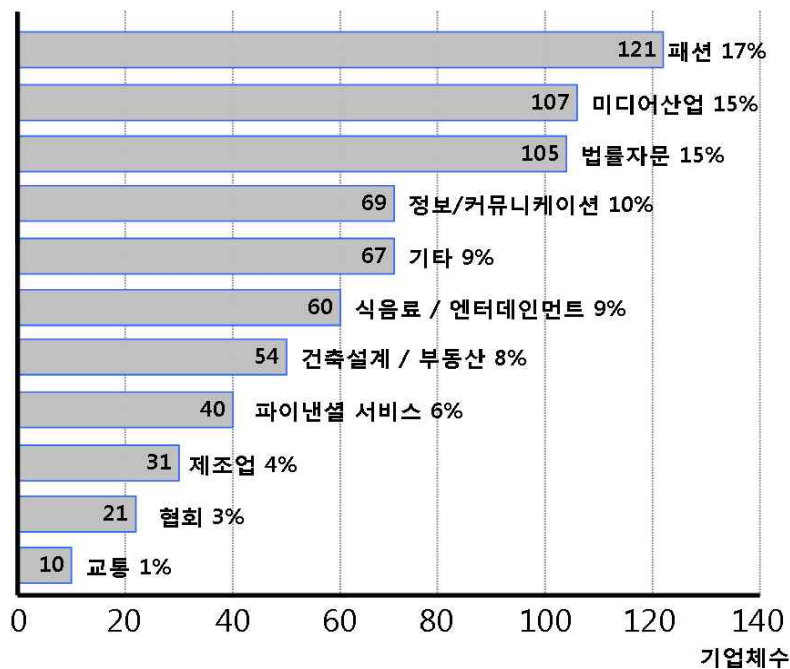
□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변정비와 도시오픈스페이스 창조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변공간을 재생하여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업무문화공간으로 창출
-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은 뒤셀도르프를 명소로 부각함



< 미디어하펜(Medien Hafen) 전경 >

- 미디어하펜(Medien hafen)은 709개의 기업과 8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6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를 창출하였음
- 수변공간이 전략적인 거점으로 조성되어졌으며 도시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함
- 미디어 하버(Media Harbor)로 불리우기도 하며, WDR 등 독일의 주요 방송사와 스튜디오 등이 입지하여 미디어기업이 전체의 10%인 107개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패션 및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기업체가 다수 입지하고 있어 뒤셀도르프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미디어하펜(Medien hafen)은 709개의 기업들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주거지 확장을 위해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계획 및 개발에 착수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의 기업과 그에 따른 주거수요에 따라 미디어하펜(Medien hafen) 지역은 뒤셀도르프에서도 높은 지가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료 :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국 분석자료 (2008). 총 기업체수 709개 임. The Media Harbor : Art,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City of dusseldorf

- 메디언하펜(Medien hafen)지역 북측 라인강 제방의 도로의 지하화로 이루어진 보행자도로(Rheinuferpromenade)
 - 뒤셀도르프시민은 라인강에 대한 급진적인 수요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장기간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뒤셀도르프 도시이미지의 새로운 창출에 기여하게 됨
 - 도시중심부와 보행자도로(Rheinuferpromenade)의 연계성은 도시의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였으며 이는 도시설계와 연계되어 건축물의 높이는 이러한 보행자전용도로(Rheinuferpromenade)의 제방높이에서 2~3층 높이로 규제하게 됨
- 수변 보행자전용도로(Rheinuferpromenade)는 뒤셀도르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행자전용도로중에 하나임
 - 도시중심부와 인접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항구는 1900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도시중심부와 라인강이 단절되게 됨

- 도시중심부와 라인강변의 연계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으나, 도로의 입지로 인해 이러한 과제는 달성되기 어려운 현실임
- 이 지역은 과거 도로가 남북으로 놓여져 있어, 라인강과의 접근성을 단절시켰는데 1979년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뒤셀도르프의 명소로 각광받음



< 수변 보행자전용도로(Rheinuferpromenade) 전경 >

2) 결론

- 수변공간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① 수변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적 고유성

[수변공간에 대한 애착과 문화성이 변화를 이끈다.]

- 수변공간 정비가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시민은 수변공간에 대한 애착과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도시의 발전이 수변을 중심으로 이끌게

하였고,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는 수변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게 됨

- 다음은 그랜드 리옹(Grand Lyon)의 업무회의 시 부시장(M. Roland Bernard)이 소개한 리옹시민의 수변정비에 대한 견해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사람들은 수변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자체의 경제는 도시경제를 바꾸기도 한다. 역사문화적인 공간이 있는 수변은 도시내부의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수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시발전전략을 세울 것이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수변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도시발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변정비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하게 되었다. 수변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한 사업은 많은 도시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그랜드리옹부시장(M. Roland Bernard). 2009.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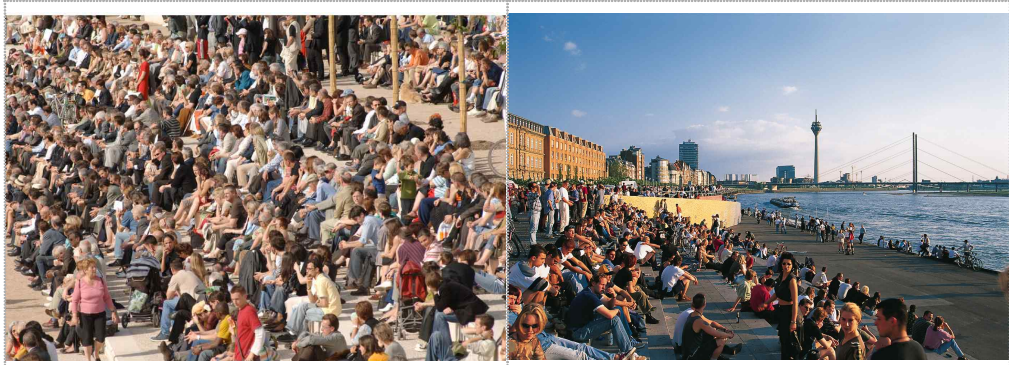
- 향후 우리나라 수변공간 정비에 있어서도 수변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수변공간(Riverfront)의 정비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변공간 정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변공간 디자인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수변공간을 디자인하다.]

-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태적인 보전을 존중하는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물가와 맞닿는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도록 놀이시설, 비치의자,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수변문화시설을 계획하였음

-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시설계획은 수변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수변공간 디자인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의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

- 우리나라의 경우, 둔치의 이용이 대부분 단조로운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어짐
-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된 수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수변공간 정비에 있어서 주요한 디자인 적용요소로 판단됨
-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는 디자인의 적용은 수변활동의 제약을 없애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부활하게 만들

③ 친밀하게 접근가능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루어진 수변공간

[도 시민은 누구나 쉽게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다.]

- 해외의 수변공간 대부분은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중요한 연계역할을 하고 있음
-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도시와 수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수변은 다양한 도시민의 활동공간이자 건축적 언어의 표현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교통수단 >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변공간 정비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수변공간 조성이 필요함

④ 수변공간의 정비가 도시재생의 기회로

[수변공간의 활성화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진다.]

- 해외의 대부분 수변공간 정비 대상지는 도시재생의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어, 쇠퇴하는 도시의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음
- 또한, 적은 비용의 투자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였으며 역사성을 존중하는 도시재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기존 역사자원을 최대한 고려하는 건축물 개발방식임



< 역사문화 요소를 살린 수변공간 도시재생 사례 >